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I 국어	2025학년도 고1 10월 학력평가 현대시 – 처서기, 성숙(샘플 버전)	객관식 / 15(개)
		단답/서술형 / 18(점)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에서 자연 현상은 이미지화되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소재로 기능한다. 자연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자연 현상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 현상을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같은 추상적 관념이 투영된 이미지로 재구성하기도 한다. 이때 자연 현상의 이미지들은 시적 장면 속에서 서로 연결되면서 운동성이나 방향성이 상반된 이미지로 전환되거나 대비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시적 장면을 강조하는 표현과 함께 화자의 심리 변화나 내적 사유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나)

처서* 가까운 이 깊은 밤
천지를 울리던 ⑦우레소리들도 이젠
마치 우리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걷히듯
먼 산맥의 등성이를 넘어가나보다.

역시 나는 자정을 넘어
이 새벽의 나른한 시간까지는
고단한 꿈길을 참고 견뎌야만
처음으로 가을이 이 땅을 찾아오는
벌레 설레이는 소리라도 듣게 되나보다.

어떤 것은 명주실같이 빛나는 시름을,
어떤 것은 재깍재깍 녹슨 가윗소리로,
어떤 것은 또 얇은 거미줄에라도 걸려
파닥거리는 시늉으로
들리게 마련이지만,

그것들은 벌써 어떤 곳에서는 깊은 우물을 이루기도 하
고

손이 시릴 만큼 차가운 개울물 소리를
이루기도 했다.

처서 가까운 이 깊은 밤
나는 아직은 깨어 있다가
저 우레소리가 산맥을 넘고, 설레이는 벌레소리가
강으로라도, 바다로라도, 다 흐르고 말면
그 맑은 아침에 비로소 잠이 들겠다.

세상이 유리잔같이 맑은
그 가을의 아침에 비로소
나는 ⑦잠이 들겠다.

*처서: 24절기의 하나. 더위가 수그러지기 시작하는 시기.

-박성룡, 「처서기」

(다)

㉡바람의 따뜻한 혀가
사알짝, 우듬지에 닿기만 해도
갱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짜갈짜갈 소리날 듯
온통 보석조각으로 반짝이더니

바람의 싸늘한 손이
씽 씨잉, 싸대기를 후리자
갱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후둑후둑 굵은 눈물방울로
온통 강물에 쏟아지나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황홀과
온몸이 떨리는 매정함 사이
그러나 미루나무는
그 키 한두 자쯤이나 더 키우고
몸피 두세 치나 더 불린 채

이제는 바람도 무심한 어느날
저 강 끝으로 정정한 눈빛도 주거나
애증의 이파리 모두 떨구고
이제는 제 고독의 자리에 서서
남빛 하늘로 ⑦고개 들 줄도 알거니

* 갹변: '강변'의 방언.

-고재종, 「성숙」

[객관식 문항]

1.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에서 자연 현상은 화자의 내면을 표현하는 소재로 쓰일 수 있다.
- ② 화자의 경험을 다양한 감각 이미지를 통해 자연 현상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
- ③ 자연 현상의 이미지는 추상적 관념이 투영되어 재구성되기도 한다.
- ④ 자연 현상의 이미지들은 상반된 운동성으로 대비되어 나타날 수 있다.
- ⑤ 시적 장면을 강조하는 표현은 화자의 내적 사유를 드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루나무는 '바람의 따뜻한 혀'를 통해 얻은 '황홀'을 동력으로 '바람의 싸늘한 손'을 이겨내고 있다.
- ② 미루나무는 '애증의 이파리'를 떨굼으로써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만을 잊게 된다.
- ③ '바람'은 '따뜻한 혀'와 '싸늘한 손'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통해 미루나무의 성숙을 이끄는 존재이다.
- ④ '갱변'은 미루나무가 '고독의 자리'에서 벗어나 '남빛 하늘'과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 공간이다.
- ⑤ '정정한 눈빛'은 '바람'에 대한 미루나무의 원망과 슬픔이 극복되었음을 상징한다.

3. ⑦과 ⑧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은 점차 생성되어 가고, ⑧은 점차 소멸되어 간다.
- ② ⑦은 내면의 평정을, ⑧은 존재의 성숙을 방해하는 존재이다.
- ③ ⑦은 화자가 수용해야 할 대상이고, ⑧은 대상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 ④ ⑦은 화자가 벗어나려는 상태를, ⑧은 대상에게 성숙의 계기를 제공하는 자극을 의미한다.
- ⑤ ⑦과 ⑧은 모두 화자의 내면적 갈등이 외부 세계에 투영된 자연물이다

4. (다)의 '미루나무'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소멸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보며 연민하고 있다.
- ② 시련을 통해 내면적 성숙을 이루어내는 존재로 보며 그 과정을 긍정하고 있다.
- ③ '바람'의 폭력성에 굴복하여 본질을 상실한 존재로 보며 비판하고 있다.
- ④ '황홀'과 '매정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에서 화자 자신의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 ⑤ '애증의 이파리'를 떨굼 모습에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이룬 해방을 예찬하고 있다.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에서 자연 현상은 이미지화되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소재로 기능한다. 자연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자연 현상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 현상을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같은 추상적 관념이 투영된 이미지로 재구성하기도 한다. 이때 자연 현상의 이미지들은 시적 장면 속에서 서로 연결되면서 운동성이나 방향성이 상반된 이미지로 전환되거나 대비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⑦시적 장면을 강조하는 표현과 함께 화자의 심리 변화나 내적 사유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박성룡, 「처서기」

(나)

처서* 가까운 이 깊은 밤
천지를 울리던 우레소리들도 이젠
마치 우리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걷히듯
먼 산맥의 등성이를 넘어가나보다.

역시 나는 자정을 넘어
이 새벽의 나른한 시간까지는
고단한 꿈길을 참고 견뎌야만
처음으로 가을이 이 땅을 찾아오는
벌레 설레이는 소리라도 듣게 되나보다.

어떤 것은 명주실같이 빛나는 시름을,
어떤 것은 재깍재깍 녹슨 가윗소리로,
어떤 것은 또 얇은 거미줄에라도 걸려
파닥거리는 시늉으로
들리게 마련이지만,
그것들은 벌써 어떤 곳에서는 깊은 우물을 이루기도 하
고

②손이 시릴 만큼 차가운 개울물 소리를
이루기도 했다.

처서 가까운 이 깊은 밤
나는 아직은 깨어 있다가
저 우레소리가 산맥을 넘고, 설레이는 벌레소리가
강으로라도, 바다로라도, 다 흐르고 말면
그 맑은 아침에 비로소 잠이 들겠다.

세상이 유리잔같이 맑은
그 가을의 아침에 비로소
나는 잠이 들겠다.
*처서: 24절기의 하나. 더위가 수그러지기 시작하는 시기.

(다)

바람의 따뜻한 혀가
ⓐ사알짝, 우듬지에 닿기만 해도
갱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짜갈짜갈 소리날 듯
온통 보석조각으로 반짝이더니

바람의 싸늘한 손이
ⓐ씽 씨잉, 싸대기를 후리자
[A] 갱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후둑후둑 굽은 눈물방울로
ⓑ온통 강물에 쏟아지나니

온몸이 떨리는 황홀과
온몸이 떨리는 매정함 사이
[B] 그러나 미루나무는
그 키 한두 자쯤이나 더 키우고
몸피 두세 치나 더 불린 채

이제는 바람도 무심한 어느날
저 강 끝으로 정정한 눈빛도 주거나
애증의 이파리 모두 ①떨구고
이제는 제 고독의 자리에 서서
남빛 하늘로 ②고개 들 줄도 알거나
* 갱변: '강변'의 방언.

-고재종, 「성숙」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⑦을 중심으로 ⑧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⑥: 바람의 접촉이 부드럽고 가벼웠음을 감각적으로 드러내어 황홀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 ② ⑦: 미루나무 이파리들이 보석조각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음성상징어로 표현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한다.
- ③ ⑧, ⑨: 바람이 불고 이파리가 떨어지는 소리를 음성상징어로 표현하여 매정함의 이미지를 청각적으로 강조한다.
- ④ ⑩: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미루나무가 겪는 매정함의 강도가 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⑤ ⑪, ⑫: 이파리의 하강 이미지와 고개의 상승 이미지를 대비하여 성숙에 이른 미루나무의 모습을 강조한다.

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바람의 긍정적 속성을, [B]는 바람의 부정적 속성을 상징한다.
- ② [A]는 하강의 이미지를, [B] 상승의 이미지를 통해 나무가 겪는 시련을 보여준다.
- ③ [A]는 시련으로 인한 고통을, [B]는 그 고통을 감내한 결과를 보여준다.
- ④ [A]는 대상의 내적 갈등을, [B]는 대상의 외면적 성장을 나타낸다.
- ⑤ [A]는 자연의 파괴적인 힘을, [B]는 자연의 치유적인 힘을 부각한다

7.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손이 시릴 만큼 차가운 개울물 소리'는 자연 현상에 대한 화자의 경험이 청각과 촉각의 감각 이미지로 형상화된 경우이겠군.
- ② (다)에서 '갱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이 '온통 보석조각으로 반짝이'는 것은 자연 현상에 대한 화자의 경험이 시각 이미지를 중심으로 형상화된 경우이겠군.
- ③ (다)의 '미루나무는 / 그 키 한두 자쯤이나 더 키우고'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추상적 관념이 투영된 이미지로 재구성된 경우이겠군.
- ④ (다)에서 '보석조각으로 반짝이'는 긍정적 이미지와 '굵은 눈물방울로' '쏟아지'는 부정적 이미지가 대비되어 화자의 내적 사유를 드러내는군.
- ⑤ (나)에서 '벌레소리'가 '시름'에서 '찬 개울물 소리'로 변하는 것은 운동성이나 방향성이 상반된 이미지로 전환되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낸 경우이겠군.

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에서 '바람'은 종종 냉혹한 현실의 시련을 상징하지만, 시적 대상은 이 시련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겪어내며 더강인한 생명력을 획득하는 성숙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양가적 경험을 통해 드러날 수 있으며, 결국 대상은 시련을 통해 단련된 의연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 ① '바람의 따뜻한 혀'가 주는 '황홀'과 '바람의 싸늘한 손'이 주는 '매정함'은, 양가적 경험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한 것 이겠군.
- ② '황홀'과 '매정함 사이'에서 '키'를 '더 키우고' '몸피'를 '더 불린' 나무의 모습은, 시련을 겪으며 더강인한 생명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것 이겠군.
- ③ '애증의 이파리 모두 떨구'는 것은, 나무가 스스로 지니고 있던 감정을 버리고 의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극복의 과정이겠군.
- ④ '제 고독의 자리에 서서' '고개 들 줄도 알거니'는, 시련을 통해 단련된 나무가 도달한 성숙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군.
- ⑤ '바람도 무심한 어느날' '저 강 끝으로 정정한 눈빛도 주거나'는, 냉혹한 현실의 시련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나무가 외부 세계와 화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단답/서술형 문항]

9. (다)에서 하강의 이미지와 상승의 이미지가 드러내는 시구를 찾아 쓰시오. [2점]

<조건>

- 시행 전체를 그대로 옮겨 쓸 것.

하강 이미지 시구:

상승 이미지 시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다)를 읽고 <보기>의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3점]

————— <보기> —————

고재종의 「성숙」은 자연물을 통해 성숙의 과정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성숙」에서 ‘미루나무’
는 ‘바람’에 의해 (가)와(과) (나)을(를) 겪으며 성숙
에 이르게 된다. 이를 통해 성숙이라는 것은 긍정적 경험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 <조건> —————

- (다)에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옮겨 각각 한 어절 이내
로 쓸 것

(가):

(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정답 해설] 2문단에서 '자연 현상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다양한 감각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화자의 경험'을 '자연 현상'으로 형상화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서 자연 현상은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소재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자연 현상을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같은 추상적 관념이 투영된 이미지로 재구성'한다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자연 현상의 이미지들이 '운동성이나 방향성이 상반된 이미지로' '대비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⑤ 4문단에서 '시적 장면을 강조하는 표현'이 '화자의 심리 변화나 내적 사유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2. 정답 ③

[정답 해설] (다)에서 '바람'은 '따뜻한 혀'로 '황홀'을 주기도 하고, '싸늘한 손'으로 '매정함'을 주기도 한다. 미루나무는 이 '황홀'과 '매정함 사이'에서 '키'가 크고 '몸피'가 불어나는 성숙의 과정을 겪는다. 따라서 '바람'은 긍정적, 부정적 자극을 모두 주며 성숙을 이끄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미루나무는 '황홀과 매정함 사이'에서 성장하므로, '황홀'만을 동력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다. ② '애증(愛憎)'의 이파리를 떨군다는 것은 '황홀'(愛)과 '매정함'(憎) 모두를 초월하는 것이지, 고통스러운 기억만 잊는 것이 아니다. ④ '개변'은 미루나무가 시련을 겪고 성숙하는 삶의 터전이며, '고독의 자리'는 벗어나는 공간이 아니라 성숙 후 도달한 상태이다. ⑤ '정정한 눈빛'은 '저 강 끝으로' 주는 것이며, '애증'을 떨군 후의 의연함이지 원망이나 슬픔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또한 미루나무가 바람에 대해 원망이나 슬픔이라는 감정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정답 ④

[정답 해설] ⑦은 '천지를 울리던' 소리로, 화자는 이 소리가 '다 흐르고 말면' 잠이 들겠다고 하여 벗어나고자 상태를 상징한다. ⑧은 '따뜻한 혀'와 '싸늘한 손'이라는 이중적 자극을 주며, 미루나무는 이 과정을 통해 성숙에 이른다.

[오답 피하기]

① ⑦은 소멸하고 있으므로 생성되어 간다고 볼 수 없다. ⑧은 '바람도 무심한 어느날'을 통해 소멸되는 순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⑦은 생성되어 가고, ⑧은 소멸되어 간다고 볼 수 없다. ② ⑧은 '따뜻한 혀'와 '싸늘한 손'을 통해 미루나무를 성숙하게 만드는 존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⑦은 그치기를 바라는 대상이다. ⑤ ⑦과 ⑧은 화자나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실재하는 현상이다. 화자의

내면적 갈등이 외부 세계에 투영된 자연물이라고 볼 수 없다.

4. 정답 ②

[정답 해설] 화자는 미루나무가 '바람'이 주는 '황홀'과 '매정함'을 모두 겪는 '사이'에서, '그러나' '그 키'를 '더 키우고' '몸피'를 '더 불린'다고 한다. 이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이며, 마지막 연에서 '제 고독의 자리에 서서' '고개 들 줄' 아는 의연한 모습으로 이어진다. 화자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키우고', '불린 채', '고개 들 줄' 안다는 점에서 성장을 보여준다. 미루나무가 소멸함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미루나무가 본질을 상실하거나 굴복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화자가 미루나무와 동질감을 느낀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애증'을 떨군 것은 성숙의 단계이지만 미루나무가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해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정답 ②

[정답 해설] ⑥은 '자갈자갈'(여렷이 모여서 나직한 목소리로 지껄이는 소리)의 방언이거나 변형으로, '소리날 듯'과 호응하여 '보석조각'들이 부딪히는 듯한 '청각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⑧는 가벼운 접촉을 나타내는 음성상징어로, '따뜻한 혀'의 부드러움을 강조하며 '황홀'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④와 ⑧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싸늘한 손'의 거칠고 매정한 속성을 강조한다. ④ ⑧은 바람의 싸늘한 손에 의해 미루나무의 이파리들이 강물에 쏟아지는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바람이 미루나무에게 미치는 매정함의 정도가 강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⑤ ⑥와 ⑦는 각각 하강과 상승의 이미지이며, 애증을 초월한 성숙을 효과적으로 강조한다.

6. 정답 ③

[정답 해설] [A]는 '바람의 싸늘한 손'에 의해 '싸대기를 후리'고 '굵은 눈물방울로 쏟아'지는 미루나무의 모습을 통해 시련으로 인한 고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B]는 '그러나'라는 시어와 함께, 1연과 2연의 경험 '사이'에서 미루나무가 '키'를 '더 키우고' '몸피'를 '더 불린' 모습을 제시하여, 고통을 감내하고 성숙에 이른 결과를 보여준다.

[오답 피하기]

① 각각 [A]와 [B]가 아닌, 1연과 2연([A])에 대한 설명이다. ② [A]의 '쏟아지나니'에서 하강 이미지가 드러나지만, [B]에서 상승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A]는 외부의 자극으로 인한 고통이 드러난다. 대상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없다. ⑤ [A]는 자연의 파괴적인 힘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지만, [B]는 그것을 통한 성장의 결과를 보여줄 뿐, 자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의 치유적 힘을 부각하지는 않는다.

7. 정답 ⑤

[정답 해설] (나)의 3연에서 '벌레소리'는 '시름'으로, '가윗소리'로, '파닥거리는 시늉'으로, '우물'로, '개울물 소리'로 들린다고 하였다. 이는 하나의 이미지가 다양한 이미지로 들리게 마련임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따라서 '시름'이 '개울물 소리'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벌레 소리와 찬 개울물 소리는 상반된 운동성이나 방향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나)의 '손이 시릴 만큼 차가운' '개울물 소리'는 화자의 경험이 다양한 감각 이미지로 형상화된 것이다. ② (다)의 '보석조각으로 반짝이더니'는 화자의 경험이 시각 이미지를 중심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③ (다)의 '키'가 크고 '몸피'가 불어나는 '나무'의 모습은 '성숙'이라는 추상적 관념이 나무의 성장으로 투영된 것이다. ④ (다)의 '보석조각'과 '눈물방울'의 대비는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내적 사유를 드러내는 예로 적절하다.

8. 정답 ⑤

[정답 해설] '바람도 무심한 어느날'은 성숙이 이루어진 후의 시간을, '정정한 눈빛도 주거니'는 성숙한 존재의 의연함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를 외부 세계와 '화해'하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할 수 없다. '저 강 끝으로' 향하는 '정정한 눈빛'은 시련을 겪어낸 후의 의연한 시선이나 원경을 응시하는 초월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지, 특정 대상과 '화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따뜻한 혀'와 '싸늘한 손'은 양가적 경험으로 볼 수 있다. ② '황홀'과 '매정함'을 겪으며 '키우고' '불린'다는 것은 시련을 겪으며 강인한 생명력을 획득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③ '애증'은 나무가 지니고 있던 감정이며, 이를 '떨구'는 것은 감정적 동요를 극복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적절하다. ④ '고독의 자리'에 '서서' '고개 들 줄' 아는 모습은 시련을 통해 단련된 의연한 모습과 성숙의 상태에 대한 묘사로 적절하다.

9.

모범답안 [각 1점]

하강 이미지 시구: 애증의 이파리 모두 떨구고

상승 이미지 시구: 남빛 하늘로 고개 들 줄도 알거니

10.

모범답안

(가): 황홀

(나): 매정함

(순서 무관)